

# 소규모 창업 위한 입지공간 역할 기대

## 익산시, 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 분양 진행

익산시(시장 정현욱)는 국가산단단지(구. 귀곡속2단지)에 건립되는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가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1층에 홍보관을 열고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총 140억원을 투자해 12층(지하2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되며, 완공되면 공장시설과 근린생활시설 114호실을 갖추게 되고 각 호실별 크기는 전용면적 10~44평형 8개 타입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연결호실 간 벽을 터서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

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제조업, 지식·정보산업관련 업체, 섬유 임가공업체 등이 입주 가능하며, 그동안 부족했던 소규모 창업을 위한 입지공간으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입주업체에는 취·등록세 50% 감면, 재산세 37.5% 감면과 정부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많은 비즈니스 관계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4차선 동서로 변에 위치해 지리적으로 접근

성이 뛰어나 뿐만 아니라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내에 입주한 호남권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본원, 익산 창업보육센터, 한국산단단지공단 익산지사, 영등동 우체국 등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받기에 용이하고 인근에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13층 규모의 4성급 컨벤션호텔이 입지하고 있어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80~70년대 구로공간이 대한민국 수출산업단지로서 시작해 현재는 초고층형 아파트형 공장이 즐비한 IT첨단산업단지로 변화 하였듯이, 이번에 건립되는 지식산업센터가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산업센터는 지난해 10월 신설 승인을 받고 착공해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민간 투자 사업이다.

또한 2016년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에 응모 및 선정되어 국가 정책펀드를 지원받아 (유)웨스턴라이프가 하나지산운용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컨벤션호텔 건립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익산=정왕원 기자

## “익산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

### 정현욱 원광대 교수, 익산시장 출마선언

정현욱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6.13 지방선거에 '새로운 인물'이 나서서 익산을 확 바꾸어 놓고, 풍요롭고 당당한 익산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익산시장에 출마를 선언했다"고 지난 2일에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밝혔다.



정 후보는 "익산시 인구는 겨우 30만을 턱걸이 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속속 빠져나가고 있고 익산은 생기를 잃고 절망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정 후보는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익산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 또 "미국 유희시절보고 배운 선진행정, 그리고 23년간 대학에서 쌓은 전문지식을 모두 쏟아부어 익산을 위풍당당한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익산을 위대하고 풍요롭고, 당당한, 당신의 '익산'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외쳤다.

게다가 정 후보는 "익산을 클러스터의 모델도시로 탈바꿈시키면서 7개의 클러스터를 성장동력으로 삼아 익산을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며 "7개의 클러스터는 기존의 식품클러스터와 레저/오락클러스터, 팻클러스터, 역사/문화클러스터 등을 연계시켜 더 큰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서 어떻게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및 시민들의 삶이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익산=정왕원 기자

## ‘명품관광도시, 군산으로 놀러오세요’

### 군산시, 내나라여행박람회 참가 고군산 군도 등 관광자원 홍보 벌여

군산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시 대표 축제인 '시간여행축제'와 근대문화유산 및 천혜의 관광자원인 고군산 군도 등을 적극 홍보했다.

군산시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를 중심으로 시간여행마을과 고군산 군도 등 고유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데 주력했으며, 설치된 전문부스에서는 안내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관광정보를 전달하는 등 관광객 친화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군산관광 퀴즈왕'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현장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특산품을 상품으로 지급받는 행사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올해 첫 관광박람회 참여인 만큼 관광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생생한 정보 소통에 주력했다"며 "앞으로 여러 박람회에 적



군산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시 대표 축제인 '시간여행축제'와 근대문화유산 및 천혜의 관광자원인 고군산 군도 등을 적극 홍보했다.

극 참여하여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타 지자체와의 정보교류에도 힘써, 명품 관광 도시 군산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관광 상품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나라 여행박람회는 매년 450

여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관람규모가 10만여 명에 이르는 큰 규모의 관광박람회로 올해는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전북·전남·광주 3개 시도가 공동 참여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설명회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가 2018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설명회에는 삼례공업고등학교와 전주공업고등학교, 진안공업고등학교 등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도제학교 3개교 담당자와 (주)다산기공 등 58개 참여기업, 그리고 전북도교육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스위스와 독일에서 시행하는 도제 교육을 한국의 현실에 맞춰 적용한 일·학습병행 교육제도이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기업 특성에 맞는 전문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협약기업에 취업한 도제학교 학생들이 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익산=정왕원 기자

## 군산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상담회 개최

군산시가 관내 입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2018년 군산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군산지역 13개 연구·교육·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시책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과 규제개선 의견 수렴, 지원 우수사례 1:1 맞춤형 현장 상담부스 운영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경찰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익산경찰서(총경 이상주)는 지난 2일 오후 익산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이상주 익산경찰서장과 정현욱 익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작성·교환했다. 협약서에는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CPTED)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정책 사업 및 지역여량 강화주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지원 ▲기타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정보 교환·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각종 도시개발 및

정비, 건축 허가 등 사업 초기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반영하는 셉테드(CPTED)를 통해 시민을 위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상주 서장은 "앞으로 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왕원 기자

## “군산경제 살려내는 데 온 힘 다하겠다”

### 서동석 한양대 교수, 군산시장 출마선언

무소속 군산시장 출마 예정자인 서동석(59)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2일 오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들어갔다.



서 박사는 또 "변화와 개혁은 군산시민의 열망이며 군산은 이제 젊고 역동적이며 행정전문가 시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아닌 경쟁과 소통으로 참예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군산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박사는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군산시의회 제3대와 4대 의원과 호원대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군산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에 재직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는 서 박사는 "지금의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은 한국지엠 사태로 많은 시민들이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군산이 희망이 넘치는 도시 1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 시민과 시민 모두 잘사는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 박사는 특히 "삶의 터전인 공장 폐쇄에 맞서 공장을 지켜내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